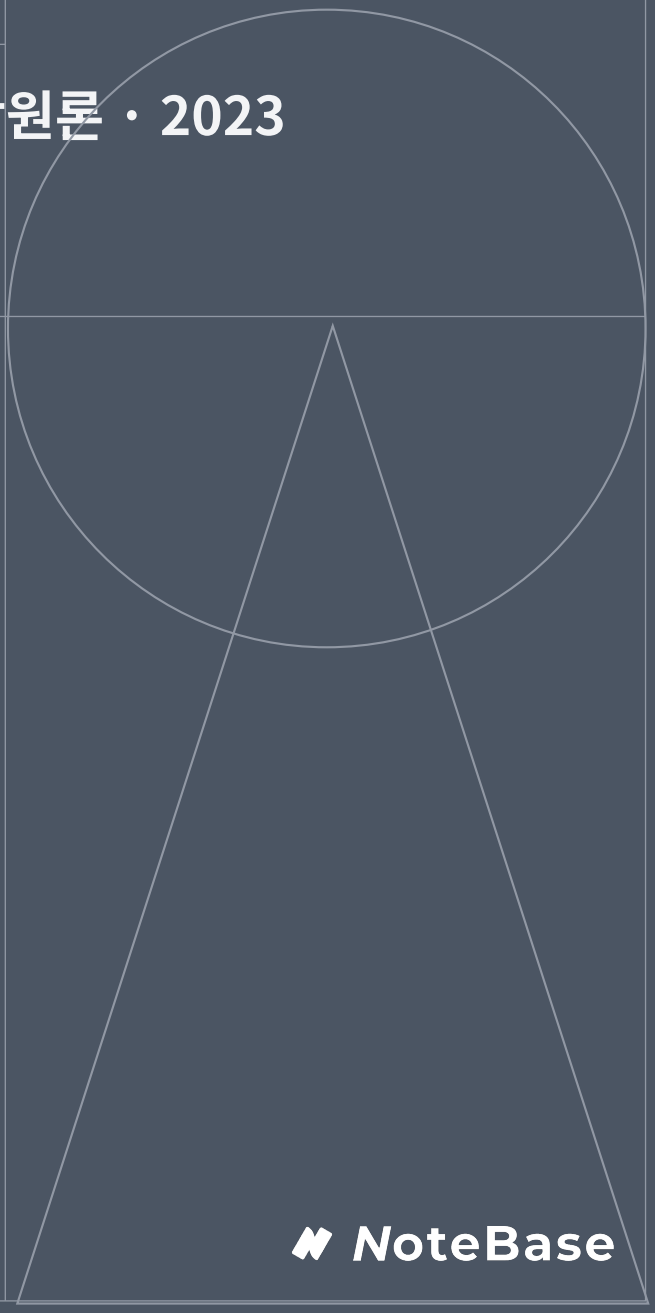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23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23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23

문 1. 갑(甲)은 하루에 7시간의 여가시간이 있고, 그 여가시간을 운동 또는 명상에 할애한다. 갑(甲)의 시간 활용에 관한 경제학적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갑(甲)이 직면한 여가시간에 대한 예산은 총 7시간이다.

② 운동과 명상은 서로 상충관계(trade-off)에 있다.

③ 운동에 대한 기회비용은 명상으로 얻는 효용이다.

④ 여가시간에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면, 화폐가치로 표현한 운동에 대한 기회비용은 갑(甲)의 시급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간제약, 상충관계, 기회비용을 구분하고 특히 기회비용을 총비용과 한계비용으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여가시간의 예산은 사용할 수 있는 총시간 제약을 뜻한다.
운동과 명상은 같은 7시간을 나누어 쓰므로 한쪽을 늘리면 다른 쪽이 줄어드는 상충관계에 있다.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 때문에 포기하는 최선의 대안 가치이다.
아르바이트 시급이 주어지면 운동 1시간의 화폐적 한계 기회비용은 시급이지만, 총 기회비용은 운동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으로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갑이 사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 총량이 7시간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갑이 직면한 여가시간의 예산은 7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② O
운동에 시간을 더 배분하면 명상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므로 두 활동은 같은 희소한 시간을 놓고 경쟁하는 상충관계에 있다.
③ O
운동을 선택하면 포기하는 최선의 대안은 명상이다. 따라서 운동의 기회비용은 명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효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④ X
틀린 부분은 "운동에 대한 기회비용은 갑의 시급이다"라는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운동 1시간의 화폐적 한계 기회비용이 갑의 시급이며, 운동 전체의 화폐적 기회비용은 운동에 사용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시급이라는 단위당 가치와 운동 전체의 기회비용을 혼동하게 만드는 선지이다. 기회비용 문제에서는 총량을 묻는지, 1단위를 묻는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어떤 희소자원을 나누는 문제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기회비용이 다른 활동의 효용인지 화폐가치인지 구분한다. 화폐가치로 바뀌더라도 총기회비용과 1단위당 기회비용은 다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기회비용은 포기한 최선대안의 가치이고, 시급은 시간 1단위의 화폐적 기회비용이다.

NoteBase

문 2. 사과시장의 수요와 공급곡선이 <보기>와 같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수요곡선: $Q_D = 24 - 3P$
• 공급곡선: $Q_S = P$
(단, Q_D는 수요량, Q_S는 공급량, P는 가격)

① 사과시장의 균형가격은 균형거래량과 동일하다.
②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frac{1}{3}$이다.
③ 균형에서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1이다.
④ 균형에서 소비자 잉여보다 생산자 잉여가 더 크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균형을 구한 뒤, 그 점에서 가격탄력성과 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를 계산해 선지를 판정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수요곡선은 $Q_D = 24 - 3P$, 공급곡선은 $Q_S = P$이다.
구해야 할 값: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이다.
주의할 조건: 탄력성은 기울기 자체가 아니라 $\left|\frac{dQ}{dP}\right| \cdot \frac{P}{Q}$ 또는 $\frac{dQ}{dP} \cdot \frac{P}{Q}$로 계산한다.

사용할 공식

균형은 $Q_D = Q_S$를 놓고 구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left|\frac{dQ_D}{dP}\right| \cdot \frac{P}{Q}$이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frac{dQ_S}{dP} \cdot \frac{P}{Q}$이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각각 해당 삼각형의 넓이로 구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각 선지가 모두 균형점의 값이나 그 점에서의 탄력성, 잉여 비교를 묻고 있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균형에서 $24 - 3P = P$이므로 $24 = 4P$, 따라서 균형가격은 $P = 6$이다.
2. 균형거래량은 $Q = P = 6$이므로 6이다.
3.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3| \cdot \frac{6}{6} = 3$이다.
4.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1 \cdot \frac{6}{6} = 1$이다.
5. 수요곡선의 가격절편은 $Q_D = 0$일 때 $P = 8$이므로 소비자잉여는 $\frac{1}{2} \cdot 6 \cdot (8 - 6) = 6$이다.
6. 공급곡선의 가격절편은 $P = 0$이므로 생산자잉여는 $\frac{1}{2} \cdot 6 \cdot 6 = 18$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균형가격은 6이고 균형거래량도 6이므로 맞는 설명이다.

② X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frac{1}{3}$이 아니라 3이다. 틀린 표현은 "가격탄력성은 \((1)/(3)이다"\)이고, 올바르게는 "가격탄력성은 3이다"이다. $\frac{1}{3}$은 수요곡선의 기울기 역수나 역수요곡선의 계수만 보고 탄력성 공식을 적용하지 않을 때 나오는 값이다.

③ O
공급곡선 $Q_S = P$의 기울기 계수는 1이고, 균형점 $(P, Q) = (6, 6)$에서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1 \cdot \frac{6}{6} = 1$이므로 맞다.

④ O
소비자잉여는 6, 생산자잉여는 18이므로 균형에서 생산자잉여가 소비자잉여보다 더 크다. 따라서 맞는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탄력성을 기울기와 혼동하게 만드는 선지이다. 수요곡선의 계수 -3이나 그 역수 $\frac{1}{3}$를 그대로 탄력성으로 착각하면 오답이 된다. 탄력성은 항상 해당 점의 P/Q를 곱해 계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직선 수요·공급 문제는 먼저 $Q_D = Q_S$로 균형점을 구하고, 그다음 탄력성은 기울기와 P/Q를 함께 계산하며, 마지막에 잉여는 절편을 이용해 삼각형 넓이로 비교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탄력성은 기울기 자체가 아니라 기울기 $\times P/Q$이며, 잉여는 균형점과 절편 사이 삼각형 넓이이다.

NoteBase

문 3. 경험적 근거를 활용한 경제학 분석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실을 반영한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데이터를 통해 검증한다.

② 모형은 현실의 근사에 불과하므로 완벽한 복제는 아니다.

③ 상관관계는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에 직접적 영향을 줄 때 발생한다.

④ 누락변수(omitted variable)는 두 사건 사이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함에도 고려되지 않은 변수를 지칭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경험적 경제학 분석에서 모형, 상관관계, 인과관계, 누락변수의 개념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경험적 분석은 경제이론이나 모형을 데이터로 검증하는 방법이다.
상관관계는 두 변수가 함께 움직이는 통계적 연관성이고, 인과관계는 한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의 변화를 직접 만들어 내는 관계이다.
누락변수는 설명에 필요한데 모형에 포함되지 않아 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변수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경험적 분석은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세우고, 그 모형의 타당성을 실제 데이터로 검증하는 접근이다. 선지의 설명은 실증분석의 기본 절차와 맞다.
② O: 경제모형은 현실의 핵심 요소를 단순화해 표현한 근사물이다.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이지 현실 자체의 완전한 복제는 아니다.
③ X: 틀린 부분은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에 직접적 영향을 줄 때"이다. 이것은 상관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의 설명이다. 상관관계는 두 사건이나 변수가 함께 움직이는 연관성을 뜻할 뿐, 직접적 영향이 없어도 나타날 수 있다.
④ O: 누락변수는 두 변수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데도 모형에서 빠진 변수를 말한다. 이런 변수가 빠지면 상관관계나 회귀계수가 왜곡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의도적으로 뒤바꾼 선지이다. 두 변수가 같이 움직인다는 사실만으로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보면 오답이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함께 움직인다"가 나오면 상관관계인지 먼저 본다. 선지에 "직접 영향을 준다", "원인이 된다"가 나오면 인과관계 설명인지 본다. 또 모형은 현실의 단순화이며, 빠진 중요한 변수는 누락변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상관관계는 함께 움직임, 인과관계는 직접 영향, 누락변수는 빠진 핵심 변수이다.

NoteBase

문 4. 갑(甲)국의 거시경제 모형이 <보기>와 같을 때, 정부가 조세를 400으로 높이자 갑(甲)국의 GDP가 4% 감소하였다면 갑(甲)국 소비자의 한계소비성향(mpc)은?

<보기>

- $C = 1{,}000 + mpc(Y - T)$
- $I = 1{,}100$
- $G = 500$
- $T = 200$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① 0.4

② 0.5

③ 0.6

④ 0.7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세 변화가 균형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이용해 한계소비성향 mpc를 역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식은 $C = 1000 + mpc(Y - T)$, $I = 1100$, $G = 500$, $T = 200$이다.
정부가 조세를 400으로 높였으므로 조세는 200에서 400으로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조세 변화는 $\Delta T = +200$이고, GDP는 4% 감소하였다.
구해야 할 값은 소비자의 한계소비성향 mpc이다.

사용할 공식

균형소득은 $Y = C + I + G$로 정리한다.
초기 균형은 $Y = 1000 + mpc(Y - 200) + 1100 + 500$ 이다.
조세 인상 후 균형은 $Y' = 1000 + mpc(Y' - 400) + 1100 + 500$ 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이 문제가 폐쇄경제에서 조세만 변할 때 균형국민소득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통해 mpc를 찾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초기 균형소득은 $Y(1-mpc)=2600-200mpc$ 이므로 $Y=\frac{2600-200mpc}{1-mpc}$ 이다.
조세 인상 후 균형소득은 $Y'(1-mpc)=2600-400mpc$ 이므로 $Y'=\frac{2600-400mpc}{1-mpc}$ 이다.
따라서 소득 감소분은 $\Delta Y=Y'-Y=-\frac{200mpc}{1-mpc}$ 이다.
문제에서 GDP가 4% 감소하였으므로 $\frac{|\Delta Y|}{Y}=0.04$ 이다.
이를 대입하면 $\frac{200mpc}{2600-200mpc}=0.04$ 이고,
$200mpc=104-8mpc$
$208mpc=104$
$mpc=0.5$ 이다.

선지 판단

① X: $mpc=0.4$를 대입하면 초기 GDP는 4200, 감소분은 약 133.3이므로 감소율은 약 3.17%이다. 4% 감소와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0.4라는 수치이고, 올바르게는 0.5이다.
② O: $mpc=0.5$를 대입하면 초기 GDP는 5000, 감소분은 200이므로 감소율은 정확히 4%이다. 문제 조건을 만족한다.
③ X: $mpc=0.6$을 대입하면 초기 GDP는 6200, 감소분은 300이므로 감소율은 약 4.84%이다. 4%보다 더 크게 감소한다. 틀린 표현은 0.6이라는 수치이고, 올바르게는 0.5이다.
④ X: $mpc=0.7$을 대입하면 초기 GDP는 8200, 감소분은 약 466.7이므로 감소율은 약 5.69%이다. 4% 감소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0.7이라는 수치이고, 올바르게는 0.5이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함정은 조세를 400으로 높였다는 말을 $\Delta T=400$으로 오해하는 점이다. 이 문제의 원래 조세는 200이므로 실제 조세 증가분은 200이다. 또 감소율 4%는 감소분을 초기 GDP와 비교한 비율이라는 점을 놓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세 변화로 mpc를 묻는 계산형 문제는 기존 조세 수준을 먼저 확인해 ΔT를 구하고, 초기 균형소득과 변화 후 균형소득을 각각 세운 뒤, 감소율 조건을 $\Delta Y/Y$에 연결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조세승수는 $-mpc/(1-mpc)$이고, 세율이 아니라 조세액이 변하면 먼저 ΔT를 정확히 잡아야 한다.

NoteBase

문 5. 갑(甲)국과 을(乙)국이 각각 보유한 노동력 100단위와 60단위를 전부 사과와 감 생산에 투입할 때 얻는 수확량이 <보기>와 같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갑(甲)	을(乙)
사과(개)	100	30
감(개)	25	20

① 갑(甲)국은 을(乙)국에 비해 사과와 감 생산에 모두 절대우위를 갖는다.

② 갑(甲)국은 사과 1개 생산을 위해 감 4개를 포기한다.

③ 갑(甲)국은 감 생산에, 을(乙)국은 사과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는다.

④ 교역조건이 감 1개당 사과 1.5개일 때, 을(乙)국은 교역의 이득이 없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표의 생산가능량으로 절대우위, 비교우위, 기회비용, 교역조건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각 나라의 총노동량과 생산량을 연결해 노동 1단위당 생산성을 본다.
2. 사과 1개와 감 1개의 기회비용을 각각 계산한다.
3. 비교우위와 교역조건을 국내 기회비용과 비교한다.

핵심 근거

갑(甲)국은 노동 100단위로 사과 100개 또는 감 25개를 생산하므로 사과 1개의 기회비용은 감 0.25개이고, 감 1개의 기회비용은 사과 4개이다.
을(乙)국은 노동 60단위로 사과 30개 또는 감 20개를 생산하므로 사과 1개의 기회비용은 감 2/3개이고, 감 1개의 기회비용은 사과 1.5개이다.
따라서 갑국은 사과 생산에, 을국은 감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교역조건이 감 1개당 사과 1.5개이면 을국의 감 1개 국내 기회비용과 정확히 같으므로 을국은 교역이득이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갑국이 총생산량에서 사과 100개, 감 25개를 보인다고 해서 두 재화 모두 절대우위인 것은 아니다. 절대우위는 같은 노동 1단위로 얼마나 생산하는지를 비교해야 한다.
사과는 갑국이 노동 1단위당 1개, 을국이 0.5개이므로 갑국이 절대우위이다. 감은 갑국이 0.25개, 을국이 1/3개이므로 을국이 절대우위이다.
틀린 표현은 "사과와 감 생산에 모두"이고, 올바르게는 "사과는 갑국, 감은 을국이 절대우위를 가진다"이다.

② X
갑국은 사과 100개와 감 25개 사이의 전환비율이 4대 1이므로 감 1개를 더 생산하려면 사과 4개를 포기한다. 반대로 사과 1개를 더 생산할 때 포기하는 감은 0.25개이다.
틀린 표현은 "사과 1개 생산을 위해 감 4개"이고, 올바르게는 "사과 1개 생산을 위해 감 0.25개를 포기한다" 또는 "감 1개 생산을 위해 사과 4개를 포기한다"이다.

③ X
비교우위는 절대생산량이 아니라 기회비용이 더 낮은 재화에서 결정된다. 갑국의 사과 1개 기회비용은 감 0.25개이고 을국은 감 2/3개이므로 갑국이 사과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감 1개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사과 4개, 을국이 사과 1.5개이므로 을국이 감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틀린 표현은 "갑국은 감 생산에, 을국은 사과 생산에"이고, 올바르게는 "갑국은 사과 생산에, 을국은 감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진다"이다.

④ O
을국은 감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지므로 감을 수출하고 사과를 수입할 때 교역이득이 생기는지를 본다. 을국의 감 1개 국내 기회비용은 사과 1.5개이다.
교역조건이 감 1개당 사과 1.5개이면 을국은 국내에서 감 1개를 사과 1.5개와 바꾸는 것과 해외교역으로 감 1개를 사과 1.5개와 바꾸는 것이 같으므로 추가 이득이 없다. 따라서 ④가 옳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은 총생산량을 그대로 보고 절대우위를 판단하거나, 기회비용의 방향을 뒤집는 실수를 노린다. 특히 ②는 감 1개의 기회비용인 사과 4개를 사과 1개의 기회비용으로 바꾸어 놓은 역수 함정이고, ④는 교역조건이 국내 기회비용과 같을 때 이득이 0이라는 점을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절대우위는 노동 1단위당 생산량으로 판단하고, 비교우위는 각 재화의 기회비용으로 판단한다. 교역이득은 교역조건이 두 나라의 국내 기회비용 사이에 있어야 생기며, 어느 한 나라의 국내 기회비용과 같으면 그 나라는 이득이 없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절대우위는 생산성 비교, 비교우위는 기회비용 비교, 교역이득은 교역조건이 국내 기회비용 사이에 있을 때 발생한다.

NoteBase

문 6. 경제적 지대와 전용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생산요소의 공급 곡선이 수평선에 가까워질수록 경제적 지대는 커진다.

② 생산요소의 공급탄력성이 0에 근접할수록 경제적 지대는 작아진다.

③ 생산요소 공급이 가격에 대해 무한 탄력적이면 전용수입만 지불하면 된다.

④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의 슈퍼스타는 경제적 지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전용수입을 받는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생산요소 보수에서 경제적 지대와 전용수입이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공급탄력성과 두 몫의 크기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제적 지대는 생산요소를 현재 용도에 묶어 두는 데 필요한 최소 보수인 전용수입을 초과해 지급되는 부분이다.
전용수입은 생산요소가 현재 용도에 남아 있도록 지급해야 하는 최소 보수이며 다른 용도로 옮기지 않게 하는 기회비용이다.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지대 비중이 커지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전용수입 비중이 커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생산요소 공급곡선이 수평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매우 탄력적이어서 지급액의 대부분은 전용수입이 되고 경제적 지대는 줄어든다. 틀린 표현은 '경제적 지대는 커진다'이다. 올바르게는 '경제적 지대는 작아지고 전용수입 비중이 커진다'이다.

② X
생산요소의 공급탄력성이 0에 가까우면 공급이 거의 완전비탄력적이므로 현재 지급액 중 경제적 지대 비중이 커진다. 틀린 표현은 '경제적 지대는 작아진다'이다. 올바르게는 '경제적 지대는 커지고 전용수입 비중은 작아진다'이다.

③ O
생산요소 공급이 가격에 대해 무한 탄력적이면 현재 용도로 끌어오기 위해 필요한 최소 보수만 지급하면 되고 초과지급분인 경제적 지대는 0이 된다. 따라서 전용수입만 지불하면 된다는 설명이 옳다.

④ X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의 슈퍼스타처럼 대체가 어려운 재능은 현재 용도에 대한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이어서 보수 중 경제적 지대 비중이 크게 나타난다. 틀린 표현은 '경제적 지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전용수입'이다. 올바르게는 '전용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경제적 지대를 받는다'이다.

오답 포인트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지대가 커진다고 방향을 거꾸로 외우면 ①과 ②를 함께 틀리기 쉽다. ④는 슈퍼스타 보수에서 전용수입과 경제적 지대의 상대적 크기를 뒤집어 놓은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전용수입은 생산요소를 현재 용도에 남게 하는 최소 보수이고, 경제적 지대는 그 초과분이라고 나눈다. 그다음 공급곡선이 수평에 가까우면 전용수입 중심, 수직에 가까우면 경제적 지대 중심으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공급이 탄력적이면 전용수입이 커지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경제적 지대가 커진다.

NoteBase

문 7. 독점적 경쟁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균형에서 독점적 경쟁시장의 기업은 효율적 규모에서 생산한다.

②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경제적 총잉여가 극대화되지 않는다.

③ 기업은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제품차별화를 시도한다.

④ 장기균형에서 가격은 한계비용을 초과하며, 이는 기업들의 독점력에 기인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독점적 경쟁시장의 장기균형, 제품차별화, 초과설비와 후생 비효율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독점적 경쟁시장은 많은 기업이 차별화된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이다.
장기균형에서는 진입과 퇴출로 경제적 이윤은 0이 되지만, 개별 기업의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므로 $P > MC$가 되고 평균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작은 산출량에서 생산한다.
효율적 규모는 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생산량이고,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이 수준보다 작은 생산량을 택해 초과설비가 발생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효율적 규모에서 생산한다"이다. 독점적 경쟁시장의 장기균형에서는 평균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작은 생산량에서 생산하므로 초과설비가 존재한다. 올바르게는 "장기균형에서 독점적 경쟁시장의 기업은 효율적 규모보다 작은 생산량에서 생산한다"이다.
② O: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고 초과설비도 존재하므로 자원배분이 완전히 효율적이지 않다. 따라서 경제적 총잉여가 극대화되지 않는다.
③ O: 독점적 경쟁시장의 핵심은 제품차별화이다. 기업은 상표, 품질, 디자인, 서비스 등의 차별화를 통해 자기 상품에 대한 수요를 확보하려고 한다.
④ O: 장기균형에서도 개별 기업은 우하향 수요곡선에 직면하므로 가격이 한계비용을 초과한다. 이는 완전경쟁과 달리 제품차별화에서 생기는 시장지배력, 즉 독점력의 결과이다.

오답 포인트

독점적 경쟁시장은 장기적으로 이윤이 0이라는 점 때문에 완전경쟁처럼 효율적 규모에서 생산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이윤 0과 효율적 규모는 같은 개념이 아니며, 독점적 경쟁은 이윤이 0이어도 제품차별화 때문에 초과설비와 $P > MC$가 남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독점적 경쟁시장 선지가 나오면 먼저 "차별화된 상품"과 "많은 기업"을 떠올리고, 장기균형에서는 이윤은 0이지만 효율성은 완전경쟁보다 낮다는 점을 확인하면 된다. 효율적 규모, $P = MC$, 총잉여 극대화가 나오면 완전경쟁과 비교해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독점적 경쟁은 이윤 0이지만 차별화 때문에 초과설비가 남고 $P > MC$가 된다.

NoteBase

문 8. 완전경쟁시장에서 어느 기업의 평균총비용이 $\frac{10}{Q}+Q$이고 시장가격이 20일 때, 이 기업의 이윤은? (단, Q는 생산량이다.)

① 90
② 100
③ 110
④ 12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완전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인 $P=MC$를 이용해 생산량을 구한 뒤 총수입과 총비용의 차이로 이윤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평균총비용은 $ATC=\frac{10}{Q}+Q$, 시장가격은 20이다.
구해야 할 값: 기업의 이윤이다.
주의할 조건: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은 $P=MC$가 되는 생산량을 선택하고,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값이다.

사용할 공식

평균총비용이 $ATC=\frac{TC}{Q}$이므로 총비용은 $TC=ATC\times Q$이다.
따라서 $TC=\left(\frac{10}{Q}+Q\right)Q=10+Q^2$이고, 한계비용은 $MC=\frac{dTC}{dQ}=2Q$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완전경쟁기업의 최적 생산량이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총비용함수는 $TC=10+Q^2$이다.
2. 한계비용은 $MC=2Q$이므로 $P=MC$에서 $20=2Q$가 되어 $Q=10$이다.
3. 총수입은 $TR=P\times Q=20\times 10=200$이다.
4. 총비용은 $TC=10+10^2=110$이다.
5. 이윤은 $\pi=TR-TC=200-110=90$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계산 결과 이윤은 90이다. $Q = 10$, $TR = 200$, $TC = 110$이므로 90이 맞다.
② X: 100은 $TR - TVC$처럼 고정비 10을 빼지 않았을 때 나오는 값이다. 틀린 표현은 이윤을 100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이윤은 90이다.
③ X: 110은 이윤이 아니라 총비용이다. 틀린 표현은 110을 이윤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총비용이 110이고 이윤은 90이다.
④ X: 120는 $TR - TC$ 계산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이윤을 120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이윤은 90이다.

오답 포인트

평균총비용에서 바로 이윤을 읽어내려 하거나, 총비용과 이윤을 혼동하면 오답이 된다. 특히 ③처럼 총비용 110을 그대로 이윤으로 착각하거나, ②처럼 고정비 10을 누락해 $TR - TVC$를 이윤으로 오해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완전경쟁기업 계산형은 평균비용을 총비용으로 바꾸고, 총비용에서 한계비용을 만든 뒤, $P = MC$로 생산량을 정하고, 마지막에 $TR - TC$로 이윤을 계산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완전경쟁기업의 이윤 계산은 $P = MC$로 Q를 구한 뒤 $\pi = TR - TC$로 마무리한다.

NoteBase

문 9. 한 경제에 X재와 Y재만 존재하고 두 재화를 소비하는 데 모든 소득을 이용한다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두 재화는 동시에 사치재가 될 수 없다.
ㄴ. 두 재화는 동시에 사치재가 될 수 있다.
ㄷ. 두 재화는 동시에 열등재가 될 수 없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모든 소득을 두 재화에만 지출할 때 소득탄력성의 지출비중 가중평균이 1이 된다는 성질을 이용해 사치재와 열등재의 동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치재는 소득이 1% 늘 때 수요가 1%를 초과해 증가하는 정상재이다. 키워드는 소득탄력성 > 1이다.
열등재는 소득이 늘면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이다. 키워드는 소득탄력성 < 0이다.
모든 소득을 X재와 Y재에만 쓰고 두 재화를 모두 소비하면 각 재화의 지출비중을 w_X, w_Y, 소득탄력성을 η_X, η_Y라 할 때 $w_X\eta_X + w_Y\eta_Y = 1$이 성립한다. 즉 소득탄력성의 양의 가중평균이 1이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①은 ㄱ만 고른 선택지이다. ㄱ은 맞지만 ㄷ도 맞으므로 완전한 답이 아니다. 틀린 부분은 'ㄱ만'이라는 선택이며, 올바르게는 'ㄱ, ㄷ'을 골라야 한다.
② X: ②는 ㄴ만 고른 선택지이다. ㄴ은 두 재화가 동시에 사치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 두 재화의 소득탄력성이 모두 1보다 크면 그 가중평균도 1보다 커져 $w_X\eta_X + w_Y\eta_Y = 1$과 모순된다. 틀린 부분은 'ㄴ'이며, 올바르게는 ㄴ을 제외하고 ㄱ과 ㄷ을 골라야 한다.
③ O: ㄱ과 ㄷ을 함께 고른 ③이 정답이다. ㄱ은 두 재화가 모두 사치재이면 소득탄력성의 가중평균이 1보다 커져 불가능하므로 옳다. ㄷ은 두 재화가 모두 열등재이면 소득탄력성의 가중평균이 음수가 되어 1이 될 수 없으므로 옳다.
④ X: ④는 ㄴ, ㄷ을 고른 선택지이다. ㄷ은 맞지만 ㄴ이 틀리므로 오답이다. 틀린 부분은 'ㄴ을 포함한 것'이며, 올바르게는 ㄴ을 빼고 ㄱ을 넣은 'ㄱ, ㄷ'이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사치재와 열등재를 각각 따로 정의만 외우고, 두 재화만 존재하며 모든 소득을 그 둘에 쓴다는 총지출 제약을 놓치면 ㄴ을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개별 재화의 성질이 아니라 소득탄력성의 가중평균이 반드시 1이어야 한다는 집계조건에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화가 몇 개뿐이고 모든 소득을 그 재화들에만 쓴다고 나오면 먼저 소득탄력성의 지출비중 가중평균이 1이라는 집계식을 떠올리면 된다. 그다음 모든 재화가 동시에 > 1인지, 동시에 < 0인지처럼 평균 1과 바로 충돌하는 경우를 제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모든 소득 사용이면 소득탄력성의 가중평균은 1이므로 모두 사치재도 불가, 모두 열등재도 불가이다.

NoteBase

문 10. 을(乙)기업은 갑(甲)기업에 의한 독점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두 기업의 가능한 선택과 그에 따른 이윤이 <보기>와 같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괄호의 첫째, 둘째 값은 각각 을(乙)기업과 갑(甲)기업의 이윤을 의미한다.)

〈보기〉

		갑(甲) 기업	
		높은 가격	낮은 가격
을(乙) 기업	진입	(200, 300)	(−100, 100)
	진입 포기	(0, 700)	(0, 200)

① 갑(甲)기업의 우월전략은 높은 가격이다.

② 을(乙)기업은 우월전략이 존재하지 않는다.

③ 내쉬균형은 을(乙)기업이 진입하고 갑(甲)기업이 높은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④ 만일 이러한 선택을 매년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면, 한 번만 하는 경우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보수행렬에서 각 기업의 최적반응, 우월전략, 내쉬균형, 반복게임 판단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갑(甲)기업의 보수를 열별로 비교해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 중 어느 쪽이 항상 유리한지 본다.
2. 갑의 선택이 주어졌을 때 을(乙)기업의 보수를 행별로 비교해 진입과 진입 포기 중 최적반응을 찾는다.
3. 서로의 최적반응이 만나는 칸을 내쉬균형으로 확인하고, 반복된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자동으로 달라지는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갑이 얻는 보수는 을이 진입할 때 높은 가격 300, 낮은 가격 100이고, 을이 진입 포기할 때 높은 가격 700, 낮은 가격 200이다. 두 경우 모두 높은 가격이 더 크므로 갑의 우월전략은 높은 가격이다.

② O
을의 보수는 갑이 높은 가격을 선택하면 진입 200, 진입 포기 0이므로 진입이 최적반응이다. 반대로 갑이 낮은 가격을 선택하면 진입 -100, 진입 포기 0이므로 진입 포기가 최적반응이다. 갑의 선택에 따라 을의 최적반응이 바뀌므로 을에게는 우월전략이 없다.

③ O
갑의 최적반응은 항상 높은 가격이다. 갑이 높은 가격을 택할 때 을의 최적반응은 진입이다. 따라서 서로의 최적반응이 만나는 내쉬균형은 (진입, 높은 가격)이다.

④ X
반복게임이라는 사실만으로 1회 게임과 반드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에서는 1회 게임의 내쉬균형인 (진입, 높은 가격)이 반복될 수 있다. 틀린 표현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이고, 올바르게는 '반복게임에서는 조건에 따라 다른 결과가 가능할 수 있으나 반복된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반드시 달라지지는 않는다'이다.

오답 포인트

괄호의 첫째 값이 을, 둘째 값이 갑이라는 점을 뒤집어 읽으면 우월전략 판단이 틀어진다. 또 반복게임을 보면 곧바로 '항상 다른 결과'라고 일반화하기 쉬운데, 반복은 가능성을 넓힐 뿐 결과 변화를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수행렬 문제는 각 플레이어가 자기 보수만 비교해 우월전략 여부를 먼저 본 뒤, 최적반응이 만나는 칸을 내쉬균형으로 찾으면 된다. 반복게임 선지는 '반복되면 무조건 결과가 바뀐다' 같은 단정 표현인지 먼저 확인하면 판단이 쉬워진다.

암기 포인트

보수행렬은 자기 숫자만 비교해 최적반응을 찾고, 반복게임은 가능성과 필연을 구분한다.

NoteBase

문 11. 총수요곡선이 우하향(즉, 총수요가 물가에 반비례)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화폐의 실질가치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더 부자가 된 것으로 생각하여 소비를 늘린다.

②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투자재의 지출이 늘어난다.

③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정부의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여 재정지출이 증가한다.

④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외환시장에서 자국화폐의 가치가 하락되어 순수출이 증가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인 부의 효과, 이자율 효과, 환율 효과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부의 효과는 물가수준이 하락할 때 화폐의 실질가치가 커져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이다.
이자율 효과는 물가수준이 하락할 때 실질통화량이 늘어나 이자율이 하락하고 투자지출이 늘어나는 현상이다.
환율 효과는 물가수준이 하락할 때 이자율 하락을 거쳐 자국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순수출이 늘어나는 현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물가수준 하락으로 같은 명목화폐가 더 많은 재화를 살 수 있게 되면 실질부가 증가한 것처럼 느껴져 소비가 늘어난다. 이는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중 부의 효과에 해당한다.

② O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실질통화량이 증가하고 그 결과 이자율이 하락하여 투자지출이 늘어난다. 이는 총수요곡선의 우하향 이유 중 이자율 효과에 해당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정부의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여 재정지출이 증가한다"는 표현이다.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명목부채의 실질부담은 오히려 커지므로 채무 상환 부담이 감소한다고 볼 수 없다.
올바르게는 "물가수준 하락은 부의 효과, 이자율 효과, 환율 효과를 통해 총수요를 늘린다"이다.

④ O
물가수준 하락은 실질통화량 증가와 이자율 하락을 거쳐 자국통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결과 순수출이 증가한다. 이는 총수요곡선의 우하향 이유 중 환율 효과를 설명한 것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정부부채와 재정지출을 끌어와 총수요의 구성항목을 떠올리게 만들지만,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표준적 이유는 부의 효과, 이자율 효과, 환율 효과이다. 특히 "부채 상환 부담이 감소"라는 문구는 물가하락 시 실질부채 부담이 커진다는 점과 반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총수요곡선의 우하향 이유를 묻는 문제에서는 먼저 소비, 투자, 순수출 가운데 어떤 경로를 설명하는지 본다. 화폐의 실질가치면 부의 효과, 이자율 변화면 이자율 효과, 자국통화가치와 순수출이면 환율 효과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총수요곡선 우하향의 세 축은 부의 효과, 이자율 효과, 환율 효과이다.

NoteBase

문 12. 실질화폐수요가 $\frac{M}{P}=\frac{4Y}{600i}$와 같이 주어져 있는 경제에서 통화량과 화폐유통속도는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고 실질이자율은 0.02(2%)일 때, 이 경제의 화폐유통속도는? (단, P는 물가, Y는 실질 생산량, M은 통화량, i는 명목이자율이다.)

① 1

② 2

③ 3

④ 4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실질화폐수요식과 수량방정식을 연결해 화폐유통속도 V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실질화폐수요는 $M/P=\frac{4Y}{600i}=\frac{Y}{150i}$이다.
구해야 할 값: 화폐유통속도 V이다.
주의할 조건: 수량방정식에서 $M/P=Y/V$라는 관계를 먼저 만든 뒤 $i=0.02$를 대입해야 한다.

사용할 공식

$MV=PY$
따라서
$\frac{M}{P}=\frac{Y}{V}$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문제에서 실질화폐수요 M/P가 주어졌고, 화폐유통속도 V는 수량방정식으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M/P=\frac{4Y}{600i}=\frac{Y}{150i}$이다.
2. 수량방정식에서 $M/P=Y/V$이므로 $\frac{Y}{V}=\frac{Y}{150i}$이다.
3. Y를 약분하면 $V=150i$이다.
4. $i=0.02$를 대입하면 $V=150\times0.02=3$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화폐유통속도는 1이 아니라 3이다. 틀린 표현은 화폐유통속도를 1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i = 0.02$를 대입하면 $M/P = Y/3$이므로 $V = 3$이다.

② X
화폐유통속도는 2가 아니라 3이다. 틀린 표현은 최종값을 2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V = 150i = 150 \times 0.02 = 3$이다.

③ O
계산 결과 화폐유통속도는 3이다. 주어진 실질화폐수요식이 $M/P = Y/V$와 같아야 하므로 $V = 150i$, 다시 $i = 0.02$를 넣으면 3이 된다.

④ X
화폐유통속도는 4가 아니라 3이다. 틀린 표현은 분자에 있는 4를 그대로 화폐유통속도로 읽은 점이며, 올바르게는 $\frac{4Y}{600i} = \frac{Y}{150i}$로 먼저 약분한 뒤 V를 구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분자에 있는 4를 그대로 속도로 오독하거나, 수량방정식의 $M/P = Y/V$ 관계를 쓰지 않고 숫자만 대입하면 오답이 된다. 이 문항은 식을 약분한 뒤 V와 연결하는 순서를 묻는 함정이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실질화폐수요와 화폐유통속도가 함께 나오면 먼저 $MV = PY$에서 $M/P = Y/V$를 만든다. 그다음 주어진 화폐수요식과 항을 맞춰 V를 식으로 구하고, 마지막에 이자율을 대입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수량방정식은 $M/P = Y/V$, 따라서 실질화폐수요의 분모에 붙는 항이 화폐유통속도와 연결된다.

NoteBase

문 13. 어느 경제는 <보기>와 같은 모형을 갖고 있다. 이 경제는 $t-1$기에 10%의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갖고 있어 전체 노동계약 중 50%만큼 명목임금을 인플레이션과 연동하여 결정한다. 이 경제가 t기의 인플레이션율을 2%까지 낮추고자 할 때 희생 비율은?

<보기>
• 필립스 곡선: $\pi_t = \pi_t^e - 2(u_t - 4)$
• 오쿤의 법칙: $g_t = 2 - 3(u_t - 4)$
• 임금물가 연동식: $\pi_t^e = \alpha\pi_t + (1-\alpha)\pi_{t-1}$
(단, π_t는 인플레이션율, π_t^e는 예상 인플레이션율, u_t는 실업률, g_t는 경제성장률, α는 임금 · 인플레이션 연동비율)

① 0.5
② 0.75
③ 1
④ 1.25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부분적 임금물가 연동 아래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을 구한 뒤, 필립스 곡선과 오쿤의 법칙을 연결해 희생비율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전기 인플레이션율 10%, 목표 인플레이션율 2%, 임금·인플레이션 연동비율 50%이므로 $\alpha = 0.5$이다.
구해야 할 값: t기의 희생비율이다.
주의할 조건: 희생비율의 분자는 실제 성장률 자체가 아니라 정상성장률 대비 산출손실률이다.

사용할 공식

$\pi_t^e = \alpha\pi_t + (1-\alpha)\pi_{t-1}$
$\pi_t = \pi_t^e - 2(u_t - 4)$
$g_t = 2 - 3(u_t - 4)$
희생비율=산출손실률인플레이션 감소폭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문제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임금물가 연동식으로 정해지고, 그 기대인플레이션이 실업률과 성장률을 거쳐 최종적으로 산출손실과 희생비율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연동비율이 50%이므로 $\alpha = 0.5$이다.
$\pi_t^e = 0.5 \times 2 + 0.5 \times 10 = 6$
2. 필립스 곡선에 대입하면
$2 = 6 - 2(u_t - 4)$
$2(u_t - 4) = 4$
$u_t = 6$
3. 오쿤의 법칙에 대입하면
$g_t = 2 - 3(6 - 4) = 2 - 6 = -4$
4. 정상성장률은 $u_t = 4$일 때의 2%이므로 산출손실률은
$2 - (-4) = 6$
5. 인플레이션 감소폭은 $10 - 2 = 8$이므로
희생비율=(6)/(8)=0.75

선지별 해설

① X
0.5는 산출손실률을 4로 잘못 잡아 4/8로 계산한 값이다.
틀린 표현은 희생비율이 0.5라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정상성장률 대비 산출손실률이 6이므로 희생비율은 0.75이다.

② O
기대인플레이션은 6, 실업률은 6, 성장률은 -4가 된다. 정상성장률 2 대비 산출손실률은 6이고 인플레이션 감소폭은 8이므로 $6/8 = 0.75$이다.

③ X
1은 산출손실률을 8로 잘못 잡아 8/8로 계산한 값이다.
틀린 표현은 희생비율이 1이라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산출손실률이 6이어서 희생비율은 0.75이다.

④ X
1.25는 산출손실률을 10으로 잘못 잡아 10/8로 계산한 값이다.
틀린 표현은 희생비율이 1.25라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희생비율이 0.75이다.

오답 포인트

희생비율의 분자를 마이너스 성장률 그 자체로 착각하면 오답이 나온다. 이 문제에서는 정상성장률 2%에서 실제 성장률 -4%를 뺀 6%가 산출손실률이다. 또한 임금물가 연동식에서 먼저 기대인플레이션을 6%로 구해야 뒤의 실업률과 성장률이 맞게 나온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부분연동 모형은 먼저 π_t^e를 계산하고, 다음에 필립스 곡선으로 u_t, 오쿤의 법칙으로 g_t, 마지막에 정상성장률 대비 산출손실률을 구해 희생비율을 계산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희생비율은 정상성장률-실제성장률인플레이션 감소폭이다. 부분연동 문항은 기대인플레이션부터 확정하면 계산이 정리된다.

NoteBase

문 14. 어느 나라에서 생산가능인구는 2,000명, 고용률은 70%, 실업률은 12.5%일 때, 실업자 수는?

① 100명

② 200명

③ 300명

④ 400명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고용률, 실업률의 정의를 연결해 실업자 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생산가능인구 2,000명, 고용률 70%, 실업률 12.5%이다.
구해야 할 값: 실업자 수이다.
주의할 조건: 고용률의 분모는 생산가능인구이고, 실업률의 분모는 경제활동인구이다.

사용할 공식

고용률 = 취업자 수 / 생산가능인구이다.
실업률 = 실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이다.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수 + 실업자 수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생산가능인구와 고용률로 취업자 수를 먼저 구한 뒤, 실업률 정의로 실업자 수를 역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취업자 수는 $2{,}000 \times 0.7 = 1{,}400$명이다.
2. 실업률이 12.5%이므로 취업자는 경제활동인구의 87.5%이다. 경제활동인구를 L이라 하면
$1{,}400 = 0.875L$이다.
3. 따라서 $L = 1{,}600$명이다.
4. 실업자 수는 $1{,}600 - 1{,}400 = 200$명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100명은 실업률 12.5%를 취업자 수 1,400명에 직접 곱해 얻은 오답에 가깝다. 실업률의 분모는 취업자가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이다. 틀린 표현은 '실업자 수가 100명이다'이고, 올바르게는 '실업자 수는 200명이다'이다.
② O: 취업자 수가 1,400명이고 실업률이 12.5%이면 경제활동인구는 1,600명, 실업자 수는 200명이다. $200/1{,}600 = 0.125$이므로 조건과 일치한다.
③ X: 300명은 경제활동인구를 1,700명처럼 잘못 잡았을 때 나오는 값이다. 고용률과 실업률의 분모를 섞으면 이런 오차가 생긴다. 틀린 표현은 '실업자 수가 300명이다'이고, 올바르게는 '실업자 수는 200명이다'이다.
④ X: 400명은 생산가능인구 2,000명에 실업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비경제활동인구까지 실업자로 착각할 때 나오는 값이다.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 안에서만 계산한다. 틀린 표현은 '실업자 수가 400명이다'이고, 올바르게는 '실업자 수는 200명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고용률의 분모는 생산가능인구이고 실업률의 분모는 경제활동인구라는 점을 혼동하면 오답이 나온다. 특히 ①처럼 실업률을 취업자 수에 바로 곱하거나, ④처럼 생산가능인구 전체에 실업률을 곱하는 실수가 자주 나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노동시장 계산 문제는 먼저 각 비율의 분모가 누구인지 확인한 뒤, 생산가능인구 → 취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 → 실업자 수 순서로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기준,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기준이라는 구분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15. 어느 도시에 노동에 대한 수요독점 기업이 있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이 기업의 노동의 공급탄력성은 1이다. 노동의 한계수입생산물(MRP_L)과 임금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노동의 한계수입생산물(MRP_L)은 임금과 같다.

② 노동의 한계수입생산물(MRP_L)은 임금의 2배이다.

③ 노동의 한계수입생산물(MRP_L)은 임금의 3배이다.

④ 노동의 한계수입생산물(MRP_L)은 임금의 4배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요독점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과 노동공급탄력성을 이용해 MRP_L와 임금의 비율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노동의 공급탄력성 $\varepsilon_s = 1$이다.
구해야 할 값: 노동의 한계수입생산물 MRP_L와 임금 w의 관계이다.
주의할 조건: 수요독점에서는 이윤극대화 조건이 $MRP_L = w$가 아니라 $MRP_L = MFC$이다.

사용할 공식

$MFC = w\left(1 + \frac{1}{\varepsilon_s}\right)$
또한 이윤극대화 조건은
$MRP_L = MFC$
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수요독점 기업이 노동을 1단위 더 고용하려면 추가 고용분뿐 아니라 기존 노동자에게도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한계노동비용이 임금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공급탄력성 $\varepsilon_s = 1$을 대입하면
$MFC = w\left(1 + \frac{1}{1}\right) = 2w$
이다.
2. 수요독점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MRP_L = MFC$이다.
3. 따라서
$MRP_L = 2w$
이다.
즉 노동의 한계수입생산물은 임금의 2배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틀린 표현은 '임금과 같다'이다. 수요독점에서는 $MRP_L = MFC$이고 $MFC = 2w$이므로 올바른 관계는 $MRP_L = 2w$이다. $MRP_L = w$는 완전경쟁적 노동시장 기업의 고용조건에 가깝다.
② O: 공급탄력성이 1이면 $MFC = 2w$이고 이윤극대화에서 $MRP_L = MFC$이므로 $MRP_L = 2w$이다. 따라서 임금의 2배라는 설명이 옳다.
③ X: 틀린 표현은 '임금의 3배'이다. 계산 결과는 $MRP_L = 2w$이므로 3배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임금의 2배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임금의 4배'이다. 공급탄력성 1은 한계노동비용을 임금의 2배로 만들 뿐이며 4배를 뜻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임금의 2배이다.

오답 포인트

수요독점에서도 습관적으로 $MRP_L = w$를 대입하면 ①로 흐르기 쉽다. 또한 공급탄력성 1을 보고 배수를 감으로 추정하면 ③이나 ④에 흔들리기 쉽다. 핵심은 먼저 $MRP_L = w$가 아니라 $MRP_L = MFC$를 세우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노동시장 문제가 수요독점이면 먼저 $MRP_L = MFC$를 세우고, 공급탄력성 ε_s로 $MFC = w(1 + 1/\varepsilon_s)$를 만든 뒤 임금과 비교한다. $\varepsilon_s = 1$이면 곧바로 $MFC = 2w$이므로 MRP_L도 임금의 2배라고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수요독점 고용조건은 $MRP_L = MFC$이고, $\varepsilon_s = 1$이면 $MFC = 2w$이다.

NoteBase

문 16. 갑(甲)국의 소비자는 A재와 B재만을 소비한다.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측정을 위한 재화묶음은 A재 10개와 B재 20개로 구성되어 있다. 기준 연도인 2022년 A재의 가격은 10이었고 B재의 가격은 5였다. 2023년 A재의 가격은 15이고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20일 때, 2023년 B재의 가격은?

① 1

② 4.5

③ 7.5

④ 9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정의인 기준연도 재화꾸러미 비용 대비 현재연도 재화꾸러미 비용 비율을 이용해 2023년 B재 가격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기준연도 재화꾸러미는 A재 10개와 B재 20개이다.
2022년 가격은 A재 10, B재 5이다.
2023년 가격은 A재 15, B재는 미지수이다.
2023년 CPI는 120이다.

사용할 공식

소비자물가지수는 현재연도 재화꾸러미 비용기준연도 재화꾸러미 비용 × 100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CPI가 기준연도와 같은 재화꾸러미를 현재 가격으로 다시 사면 비용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 주는 지수이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2022년 재화꾸러미 비용은 $10 \times 10 + 20 \times 5 = 200$이다.
2. 2023년 CPI가 120이므로 2023년 재화꾸러미 비용은 $200 \times 1.2 = 240$이다.
3. 2023년 A재 비용은 $10 \times 15 = 150$이다.
4. 따라서 2023년 B재 총비용은 $240 - 150 = 90$이다.
5. B재는 20개이므로 2023년 B재 가격은 $\frac{90}{20} = 4.5$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B재 가격이 1이면 2023년 재화꾸러미 비용은 $10 \times 15 + 20 \times 1 = 170$이 되어 CPI는 85가 된다. 틀린 표현은 B재 가격을 1로 보는 점이고, 올바르게는 B재 가격이 4.5여야 한다.
② O: 계산 결과 2023년 B재 가격은 4.5이므로 옳다.
③ X: B재 가격이 7.5이면 2023년 재화꾸러미 비용은 $10 \times 15 + 20 \times 7.5 = 300$이 되어 CPI는 150이 된다. 틀린 표현은 B재 가격을 7.5로 보는 점이고, 올바르게는 B재 가격이 4.5이다.
④ X: B재 가격이 9이면 2023년 재화꾸러미 비용은 $10 \times 15 + 20 \times 9 = 330$이 되어 CPI는 165가 된다. 틀린 표현은 B재 가격을 9로 보는 점이고, 올바르게는 B재 가격이 4.5이다.

오답 포인트

CPI 120을 가격이 120이라는 뜻으로 오해하거나, 기준연도 재화꾸러미 비용 200을 먼저 구하지 않고 바로 B재 가격에 대입하면 틀리기 쉽다. 재화꾸러미 총비용을 구한 뒤 남는 금액을 B재 20개로 나누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CPI 문제는 기준연도 재화꾸러미 비용 계산, 지수를 현재연도 총비용으로 환산, 알려진 재화 비용 차감, 남은 금액을 해당 수량으로 나누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CPI는 기준연도 재화꾸러미를 현재 가격으로 다시 샀을 때의 비용지수이며, 미지 가격은 현재연도 총비용에서 알려진 부분을 뺀 뒤 수량으로 나누어 구한다.

NoteBase

문 17. 비용 극소화를 추구하는 기업 갑(甲)의 장기 공급함수 $Q = L^{0.25} \cdot K^{0.25}$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Q는 생산량, 단기에 자본(K)은 81로 고정되어 있고, 노동(L)과 자본(K)의 단위당 가격 w와 r은 각각 10, 100이다.)

<보기>

ㄱ. 단기에서의 고정비용은 8,100이다.

ㄴ. 규모에 대한 수익은 체감한다.

ㄷ. 한계기술대체율($MRTS_{LK}$)은 100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고정비용, 규모수익, 비용극소화 조건에서의 $MRTS_{LK}$를 함께 판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생산함수는 $Q = L^{0.25}K^{0.25}$이다.

단기에는 자본이 $K = 81$로 고정된다.

요소가격은 $w = 10, r = 100$이다.

사용할 공식

단기 고정비용은 $FC = rK$이다.

규모수익은 생산함수 지수의 합으로 판단한다.

$MRTS_{LK} = \frac{MPL}{MPK}$이고 비용극소화점에서는 $MRTS_{LK} = \frac{w}{r}$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보기 ㄱ은 단기 고정비용, ㄴ은 규모수익, ㄷ은 요소대체의 기울기를 묻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단기 고정비용은 $FC = rK = 100 \times 81$이므로 8,100이다.
2. 생산함수의 지수 합은 $0.25 + 0.25 = 0.5$이므로 1보다 작다. 따라서 규모에 대한 수익은 체감한다.
3. $MPL = 0.25L^{-0.75}K^{0.25}$, $MPK = 0.25L^{0.25}K^{-0.75}$이므로 $MRTS_{LK} = \frac{MPL}{MPK} = \frac{K}{L}$이다.
4. 비용극소화의 접점에서는 $MRTS_{LK} = \frac{w}{r} = \frac{10}{100} = 0.1$이다. 따라서 ㄷ의 100은 맞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ㄱ은 맞다. 단기에서 자본이 81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고정비용은 자본비용 8,100이다.
- ㄴ은 맞다. 생산함수의 지수 합이 0.5이므로 투입요소를 같은 비율로 늘려도 산출은 그보다 작은 비율로 증가한다.

② X
- ㄱ은 맞지만 ㄷ이 틀려서 오답이다.
- ㄷ의 잘못된 표현은 "한계기술대체율$MRTS_{LK}$은 100이다"이다. 올바르게는 일반식이 K/L이고, 비용극소화점에서는 $w/r = 0.1$이다.

③ X
- ㄴ은 맞지만 ㄷ이 틀려서 오답이다.
- 잘못된 부분은 ㄷ이며, 올바르게는 $MRTS_{LK}$가 100이 아니라 0.1 또는 일반식으로 K/L이다.

④ X
- ㄱ과 ㄴ은 맞지만 ㄷ이 틀려서 오답이다.
- 올바른 조합은 ㄱ, ㄴ만 포함한 ①이다.

오답 포인트

요소가격이 주어지면 $MRTS$를 절대가격 하나로 읽기 쉽다. 그러나 비용극소화에서는 $MRTS$가 요소가격비 w/r와 같아진다는 점이 함정이다. 또 규모수익은 한계생산이 아니라 지수의 합으로 본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산함수 문제는 먼저 단기 고정비용을 rK로 계산하고, 다음으로 지수의 합으로 규모수익을 판별한 뒤, 요소가격이 있으면 $MRTS = w/r$ 조건까지 연결해 조합선지를 고르면 된다.

암기 포인트

코브더글러스 함수는 지수 합으로 규모수익을 보고, 비용극소화점에서는 $MRTS_{LK} = w/r$이다.

NoteBase

문 18. 기업의 비용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계비용곡선은 평균총비용곡선의 최저점을 아래에서 위로 관통한다.

② 평균총비용곡선은 평균가변비용곡선과 평균고정비용곡선의 수직적 합과 같다.

③ 평균가변비용곡선이 우상향인 경우 한계비용곡선은 항상 평균가변비용곡선보다 위에 위치한다.

④ 평균고정비용곡선의 상향 이동은 한계비용곡선을 상향으로 이동시킨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계비용, 평균가변비용, 평균고정비용, 평균총비용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계비용은 생산량을 1단위 늘릴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이다.
평균가변비용은 가변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고, 평균고정비용은 고정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다.
평균총비용은 평균가변비용과 평균고정비용의 합이다.
핵심 관계는 평균비용이 하락할 때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고, 평균비용이 상승할 때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높다는 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한계비용곡선은 평균총비용곡선의 최저점에서 평균총비용곡선을 아래에서 위로 관통한다. 평균총비용이 하락할 때는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낮고, 최저점에서는 같아지며, 그 이후에는 더 높아진다.

② O
평균총비용은 평균가변비용과 평균고정비용의 수직적 합과 같다. 총비용이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의 합이므로 이를 생산량으로 나누면 평균총비용은 평균가변비용과 평균고정비용의 합이 된다.

③ O
평균가변비용곡선이 우상향이면 평균가변비용이 상승하는 구간이라는 뜻이므로 한계비용은 평균가변비용보다 위에 있다. 평균가변비용이 상승하는데도 한계비용이 그 아래에 있으면 평균가변비용은 내려가야 하므로 모순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평균고정비용곡선의 상향 이동은 한계비용곡선을 상향으로 이동시킨다"는 표현이다.
평균고정비용의 변화는 고정비의 변화이므로 한계비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고정비가 증가하면 평균고정비용곡선과 평균총비용곡선은 위로 이동하지만, 평균가변비용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평균총비용과 한계비용을 함께 움직인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선지이다. 고정비는 총비용 수준은 바꾸지만 추가 1단위 생산에 드는 비용은 바꾸지 않으므로 한계비용은 그대로라는 점에서 틀린다. 발문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놓치면 ①이나 ③처럼 맞는 설명을 골라 오답이 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용곡선 문제에서는 먼저 발문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확인한다. 그다음 평균과 한계의 관계를 적용해 평균이 내려가면 한계는 평균 아래, 평균이 올라가면 한계는 평균 위라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고정비 변화는 AFC와 ATC만 움직이고 AVC와 MC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정리하면 빠르게 선지를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MC는 평균의 방향을 결정하고, 고정비 변화는 AFC·ATC만 바꾸고 MC는 바꾸지 않는다.

NoteBase

문 19. 단위당 30의 외부 비용을 발생시키는 재화의 사적 공급곡선은 P=20+5Q, 수요곡선은 P=100-5Q이다. 정부는 외부 비용으로 인한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줄이고자 공급자에게 단위당 50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사회적 최적 산출량과 비교하였을 때, 정부개입 전과 후의 사중손실 차이는? (단, Q는 산출량, P는 가격이다.)

① 25

② 30

③ 35

④ 4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외부비용이 있는 시장에서 $SMC = MPC + MEC$로 사회적 최적산출량을 구하고, 세금 부과 전후의 사중손실을 삼각형 면적으로 비교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사적 공급곡선은 $P = 20 + 5Q$, 수요곡선은 $P = 100 - 5Q$, 단위당 외부비용은 30, 단위당 세금은 50이다.
구해야 할 값: 사회적 최적산출량과 비교한 정부개입 전후의 사중손실 차이이다.
주의할 조건: 외부비용이 일정하므로 사회적 한계비용은 사적 한계비용에 30을 더한 값이고, 세금 50은 외부비용 30보다 커서 개입 후에는 과소생산이 발생한다.

사용할 공식

사회적 한계비용은 $SMC = MPC + MEC = (20 + 5Q) + 30 = 50 + 5Q$이다.
사회적 최적산출량은 $MB = SMC$에서 구한다.
사중손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산출량과 실제 산출량 사이에서 수요곡선과 SMC 사이에 생기는 삼각형 면적이므로 DWL=(1)/(2)× 밑변 × 높이를 사용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외부비용 문제에서는 시장균형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 사회적 최적산출량 Q^*가 기준이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사회적 최적산출량은 $100 - 5Q = 50 + 5Q$에서 구하므로 $Q^* = 5$이다.
2. 정부개입 전 시장균형은 $100 - 5Q = 20 + 5Q$이므로 $Q_m = 8$이다. 이때 초과생산 구간은 5에서 8까지이고, 높이는 단위당 외부비용 30이므로 사중손실은 $\frac{1}{2} \times (8 - 5) \times 30 = 45$이다.
3. 세금 50을 공급자에게 부과하면 세후 공급곡선은 $P = 20 + 5Q + 50 = 70 + 5Q$이다. 새로운 균형은 $100 - 5Q = 70 + 5Q$이므로 $Q_t = 3$이다.
4. 정부개입 후에는 사회적 최적산출량 5보다 적게 생산하므로 사중손실은 3에서 5까지의 과소생산 삼각형이다. $Q = 3$에서 수요가격은 85, 사회적 한계비용은 65이므로 높이는 20이고, 사중손실은 $\frac{1}{2} \times (5 - 3) \times 20 = 20$이다.
5. 따라서 전후 사중손실 차이는 $45 - 20 = 25$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정부개입 전 사중손실은 45, 정부개입 후 사중손실은 20이므로 차이는 25이다. 따라서 옳은 선택지이다.
② X: 30은 전후 사중손실 차이를 잘못 계산한 값이다. 외부비용 30을 그대로 차이로 볼 수 없고, 올바르게는 $45 - 20 = 25$이다.
③ X: 35는 정부개입 전 사중손실이나 정부개입 후 사중손실 중 하나를 오산해야 나오는 값이다. 세전 사중손실은 $\frac{1}{2} \times 3 \times 30 = 45$, 세후 사중손실은 $\frac{1}{2} \times 2 \times 20 = 20$이므로 35가 아니라 25이다.
④ X: 40은 세후 균형산출량 또는 세후 사중손실을 잘못 잡은 값이다. 세금 50을 반영한 공급곡선은 $P = 70 + 5Q$이고 세후 균형산출량은 3이므로, 전후 차이는 40이 아니라 25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의 함정은 두 가지이다. 첫째, 외부비용 30만 보고 피구세도 30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떠올린 뒤 실제 부과세 50을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 실수가 잦다. 둘째, 사중손실 비교 기준을 시장균형이 아니라 사회적 최적산출량 $Q^* = 5$로 잡아야 하는데, 이를 놓치면 세전 초과생산과 세후 과소생산을 제대로 비교하지 못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외부효과 계산형 문제는 먼저 SMC를 만들어 사회적 최적산출량을 구한 다음, 시장균형과 정책 후 균형을 각각 Q^*와 비교해 사중손실 삼각형을 따로 계산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외부비용이 일정하면 $SMC = MPC + MEC$이고, 피구세가 외부비용보다 크면 과소생산 사중손실이 남는다.

NoteBase

문 20. 주민 5명이 사는 마을에 멧돼지가 피해를 주고 있다. 멧돼지를 막을 울타리를 마을 전체에 설치하기 위한 비용은 800만 원이고, 울타리에 대해 주민 5명이 갖는 지불 의사는 <보기>와 같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A: 100만 원 B: 150만 원
C: 150만 원 D: 200만 원
E: 300만 원

①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② 정액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한다면 다수결에 의해 울타리는 설치된다.
③ 울타리 설치에 대한 사회적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
④ 모든 주민은 무임승차에 대한 유인이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울타리 설치를 공공재 제공 문제로 보고, 사회적 효율성과 다수결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주민은 5명이고 울타리 설치 총비용은 800만 원이다.
주민별 지불의사는 A 100만 원, B 150만 원, C 150만 원, D 200만 원, E 300만 원이다.
판단에는 총지불의사의 합과, 정액세를 부과할 때 각 주민이 부담하게 될 1인당 비용을 함께 봐야 한다.

핵심 개념

공공재의 효율성은 개인별 지불의사를 합한 사회적 총편익이 총비용보다 큰지로 판단한다.
정액세는 개인별 편익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균등 부담 방식이므로,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사업도 다수결에서는 부결될 수 있다.
무임승차는 비용을 충분히 내지 않고도 공공재 편익을 함께 누리려는 유인이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먼저 총지불의사 $100 + 150 + 150 + 200 + 300 = 900$만 원을 총비용 800만 원과 비교한다.
그다음 정액세로 비용을 조달하면 1인당 부담은 $800 \div 5 = 160$만 원이므로, 각 주민의 지불의사가 160만 원 이상인지로 찬반을 판단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울타리 설치의 총편익은 주민들의 지불의사 합인 900만 원이고 총비용은 800만 원이므로, 총편익이 총비용보다 크다. 따라서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효율적이다.
② X: "정액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한다면 다수결에 의해 울타리는 설치된다"가 틀렸다. 정액세로 균등하게 부담하면 1인당 160만 원을 내야 한다. A, B, C의 지불의사는 각각 10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이어서 반대하고, D와 E만 찬성하므로 2대 3으로 부결된다. 올바르게는 "정액세로 비용을 조달하면 다수결에 의해 울타리는 설치되지 않는다"이다.
③ O: 사회적 편익은 개별 지불의사를 모두 더한 값으로 본다. 그 합은 900만 원이므로 비용 800만 원보다 크다.
④ O: 울타리가 한 번 설치되면 주민들이 함께 편익을 누리므로, 각 주민은 자신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혜택은 받고 싶어 하는 무임승차 유인을 가진다.

오답 포인트

효율성과 다수결 결과를 같은 것으로 보면 ②에 속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총편익이 총비용보다 크다는 사실과, 정액세 아래에서 각 개인이 느끼는 사적 순편익이 다르다는 사실을 구분하지 않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공재 사례가 나오면 먼저 지불의사 합과 총비용을 비교해 효율성을 판단한다. 그다음 투표나 자발적 분담을 묻는 선지는 각 개인의 부담액과 개인별 지불의사를 다시 비교해 본다.

암기 포인트

공공재는 사회적으로는 효율적이어도 정액세와 다수결 아래에서는 과소공급될 수 있다.

NoteBase